

통번역 수업에서의 일본 차별어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조 영 주
(이화여대)

1. 서론

한국어와 일본어간의 번역과 통역의 실무에 있어서 혹은 통번역 교육 과목의 수업에 있어서 ‘차별어’가 텍스트에서 등장하면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단어나 다른 비유적 표현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한일 방향의 번역과 통역 시에 그러한 빈도는 더 높아진다. 이는 한일 간의 차별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 배경에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차별어를 둘러싼 한일 간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별어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차별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선행연구도 많다고

*이 연구는 201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할 수 없다.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차별적 표현 연구 등이 있지만 일본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또한 명확한 기준 없이 차별어가 미디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차별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어 있고 신문, 방송매체, 출판사 등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자율적 규제에 따라 차별어 사용을 피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지적함과 동시에 한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통역번역대학원 학생들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별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진행한 번역결과물을 분석하며 통번역 과목 수업에서 일본어의 차별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의 차별어의 개념과 유형

2.1. 차별어의 개념

한국과 일본에서의 차별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에서는 1970년경부터 ‘차별어’를 낳는 일본 내부의 여러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시오미(塩見鮮一郎 1992)나 우치노(内野正幸 1990) 등의 연구에서 보이듯, ‘일본의 피차별부락’¹⁾에 관한 차별과 관련시킨 내용이 대부분이며, 1980년대에 들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정운동의 일환으로 발표된 나마세(生瀬克己 1986) 등의 논문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여

1) 피차별부락의 기원은 에도시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열고 사회유지장치로서 사농공상의 신분제도를 만들고, 다시 그 아래에 천민으로서 ‘穢多(eta)’ ‘非人(hinin)’을 두고, 그들을 특별한 지역에 거주시켰다. 오늘날까지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과, 메이지시대에 들어 국가적 편익에 따라 정부에 의해 이주하게 되어 생긴 새로운 지역, 이 두 가지를 ‘피차별부락’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형성한 ‘부락’과 구별하기 위해 ‘피차별부락’이라 부른다.

성에 대한 차별어를 다룬 나카무라(中村桃子 2003)의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Political Correctness (차별적 표현 시정운동)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차별어’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의 차별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변용찬·김성희·서동우·이선우·임유경(2001), 조태린(2006), 임영철·이길용(2010) 등이 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어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주로 장애인 관련 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선, 대체어에 관한 기초연구가 있고, 박혜경(2009)의 국어교육의 관점에서의 차별어에 관한 연구, 언어차별 인식에 대해 연구한 박동근 (2010)의 연구 등이 있다. 국내에서 일본어 차별어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의 차별어 연구」(2007) 등 박정일의 연구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역 또는 번역의 관점에서 일본어의 차별어를 언급한 논문으로는 조영주(2007)에서 “한일방향의 방송통역에 있어...(중략)...차별적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예로는 경제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용어, 인종, 종교, 젠더, 심신의 장애, 질병과 관련된 용어를 다룰 때에는 차별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차별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일본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국인 NHK가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²⁾고 지적한 것 이 외에는 검색되지 않았다.

‘차별어’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학자들도 여러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전적 의미를 한국어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나, 일본어에서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성별에 따라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가지는 말. 차별 용어’³⁾라고 정의되어 있다. ‘차별어’라는 명칭도 일본에서는 주로 ‘차별용어’, 한국에서는 주로 ‘차별적 표현’ 등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조태린(2006)이 한국의 ‘차별어’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실태보고서 등에서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혜경(2009)이 “차별적 언어표현이란 사회의 소수

2) 조영주(2008) 「방송 통역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어문학 제39권 p154.

3) デジタル大辭泉에서 검색.

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특정 단어·구·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을 말한다”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본어 차별어에 대해 연구를 해 온 박정일(2004)은 “차별적 언어 표현이 받아들이는 입장과 말하는 입장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맥이나 의도, 단어의 의미에 멸시와 차별의 관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일본어의 ‘차별어’ 또는 ‘차별용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개별적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차별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논의해 왔다. 후쿠오카(福岡安則 1985)는 “역사적, 사회적인 과정 속에서 현대사회에 엄존하는 차별적 제 관계가 일정한 표현에 투영되면서 그 표현 자체에 특정한 피차별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적 의미가 고정된 것이 차별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우치노(内野正幸 1990)는 “차별적 표현이란 유대인, 흑인, 피차별부락민 등의 소수집단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증오, 배척, 차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현행위이며, 또한 어떤 소수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2.2. 차별어의 유형

국내에서의 차별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2000년대 들어 국가기관 등의 용역연구과제로서 여성, 장애인 등과 관련된 차별어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 형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차별어의 유형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조태린(2006)의 연구에서이다. 조태린은 차별어의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표 1〉 차별적·비객관적 표현의 유형(조태린, 2006)

조사이유	내용	보기	
성	여성명칭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	미혼모, 미망인
	여성강조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냄	여의사, 여대생, 여기자
	신체강조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	처녀림, 처녀작, 처녀생식

	고정관념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반영	시집가다, 바깥사돈
	여성비하	여성을 비하	계집애, 마누라
신체	장애비하	신체 장애를 비하	귀머거리, 병어리, 절름발이
	장애이용	신체 장애를 이용	병어리 냉가슴, 절름발이 행정
	외모비하	외모를 비하	똥보, 쏸다리
	외모강조	불필요한 외모 강조 및 묘사	몸짱, 얼짱, 섹시, S라인
인종·국적·지역	인종비하	특정 인종을 비하 또는 차별	검둥이, 잡종, 유색인, 혼혈아
	자국중심	자국 중심의 사고	교포/동포/재외국민, 코시안
	지역차별	특정 지역을 비하 또는 차별	올라가다, 여의도 면적의...
직업사회	직업비하	특정 직업을 비하	잡상인, 봉급쟁이, 노가다
	부적절지칭	부적절한 지칭	간호원, 청소부, 신용불량자
	출생비유	특정한 출생을 비하	사생아, 미숙아
객관성	가치판단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모호	진보/보수, 좌파/우파, 일류/이류
	지시대상	지시 대상 및 의미가 불분명	강남, 고전무용, 클래식음악
	과장자극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	초일류, 최악, 군단, 비밀병기

박혜경(2009: 29)의 연구에서는 차별어를 ‘성차별적 표현’,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 ‘지역·국적 및 인종 차별적 표현’, ‘직업 및 지위 차별적 표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후의 다른 논문들에서도 이 두 사람의 유형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여러 연구논문과 서적 등에서 사례들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카기 마사유키(高木正幸) 『차별용어의 기초지식(差別用語の基礎知識)』과 교토통신사(共同通信社) 『기자 핸드북(記者ハンドブック)』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다카기 마사유키의 『차별용어의 기초지식』은 일본의 차별어 연구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참고문헌으로 삼고 있어서이며, 『기자 핸드북』은 일본에 존재하는 많은 미디어에 의해 작성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기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출판된 일종의 신문용어집으로서 좀 더 대중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텍스트

의 차별어의 유형을 발췌하여 <표 2>와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별어의 유형은 대부분 중복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 피차별부락과 관련된 유형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이 다르다.

<표 2> 차별용어의 기초지식 중에서 일부 정리

유형	구체적인 표현
부락(部落)문제와 관련된 차별어	部落・特殊部落・エタ(穢多)・新平民 등
심신의 장애와 질병과 관련된 차별어	身体障害者・精神薄弱者・精神分裂病 등
젠더(성차별)와 관련된 차별어	父兄・女子供・老婆 등
직업과 관련된 차별어	屠殺・畜殺・人夫・女工 등
민족・인종과 관련된 차별어	朝鮮征伐・支那・黑人・原住民 등
기타	落ちこぼれ・田舎者・片親 등

<표 3> 기자핸드북의 차별어 분야 중에서 일부 정리

유형	구체적인 표현
심신의 장애와 질병과 관련된 차별어	めくら・奇形兒・文盲率・植物人間・精神分裂病 등
직업과 관련된 차별어	女工・炭鉱夫・魚夫・清掃婦(夫)・屠殺業 등
신분・부락(部落)과 관련된 차별어	同和(單獨では使用しない)・部落 등
민족・인종과 관련된 차별어	外人・ジプシー・アイヌ人・混血兒 등
젠더(성차별)와 관련된 차별어	女流・女史・未亡人・婦女子・父兄 등
기타	養老院・スキンヘッド・娼婦

2.3. 한국과 일본의 차별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규제

앞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별어의 개념과 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과 차별어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슷해서일 수도 있고, 언어에 있어서 한자어의 경우 발음은 다르지만, 많은 경우 같은 한자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과연 차별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정도의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 사회가 차별어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차별어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영향으로 정부 혹은 여러 사회단체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일부 차별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논문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임영철·이길용(2008: 189)이 “지금까지 언론매체에 있어서 무분별적인 장애인 차별어의 사용이 지적되기도 했으며”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간지나 방송매체 등 공공언어 영역에서 일부 차별어 순화에 대한 노력⁴⁾이 있었다고는 하나 인터넷에서 미디어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차별어가 나타나는 등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크지 않으며 그만큼 차별어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동근이 2010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공공언어(일간지)에 나타나는 차별적 표현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동근(2010: 83)은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나, 인종차별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사회적 가치판단에 대한 차별인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판단기준에 대한 차별표현에 대한 인식’이란 ‘결손가정’처럼 결혼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이 아니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차별적 표현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즉 비객관적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한 차별적 표현인 것이다.

한편 일본에 있어서의 차별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의 TV방송이나, 신문기사, 문학작품 등에 등장하는 단어, 표현 등이 ‘차별어’

4)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명칭 새로 만들기 운동(<http://www.mw.go.kr/>) 등과 국립국어원,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편(2010) 『이런 말에 그런 뜻이?』을 통한 홍보활동 등이 있다.

혹은 '차별적 표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관련단체의 항의나 규탄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피차별부락문제'와 연결되는 경우는 관련 단체의 규탄은 더욱 강력하다. 차별적 표현과 관련하여 미디어에 대한 피차별단체의 항의는 197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피차별부락문제뿐 아니라, 장애인문제는 신체장애인에서부터 정신장애인으로, 직업차별, 여성차별, 그리고 조선민족차별로, 반차별 운동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항의나 규탄을 받는 미디어 측도 '인권차별문제'의 계몽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특히 신문업계, 방송업계 등은 '금지어집' '대체어집'이나 '방송 상 삼갈 용어'⁶⁾ 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자주규제'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 왔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에 차별어에 대한 규제를 하는가 하면, 실수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방송 혹은 보도되거나 도서로 출판된 경우, 도서의 경우 '긴급개정' '출고정지' '회수' '절판', 방송의 경우 '공개 사과' '방송중지' 등의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의 차별어사용이 문제가 된 경우는 '확인회' '규탄회' '사내연수' 등을 실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사과' 발표를 통해 그 기업의 윤리성, 신뢰성까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렇듯, 미디어뿐만 아니라 출판, 기업, 학교에 이르기까지 차별어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공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인들의 차별어에 대한 인식도 한국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율적 규제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일본 국내에

5) 일본에서 '규탄'의 사전적인 의미는 “죄나 책임을 추궁하며 비난하는 것”이라 되어 있으나, 피차별부락운동단체인 '부락해방동맹' 등이 '부락민'에 대해 차별을 하고 피해를 입힌 기업, 학교, 언론기관 등을 찾아가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공개적으로 때로는 과격한 형태로 '규탄회'를 여는 일이 빈발하고, 이에 대해 부락해방동맹이 스스로 '규탄'이라고 지칭하고 “차별사건에 있어서 피차별자가 차별의 실행자나 관련된 책임자 등을 차별자로 지목된 사람을 호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락문제 등의 차별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비난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림으로서 '규탄'의 또 하나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6) 일본 공공방송인 NHK(『NHKことばのハンドブック』)를 비롯하여 TV아사히 등 민영방송(『放送ハンドブック：文化をになう民放の業務知識』)과 아사히신문(朝日新聞の用字・用語の『取り決め集』 등 주요 신문사 등은 자체적으로 차별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서는 많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한 사례가 일본문예가협회의 성명서(1975년 11월 5일 발표)와 ‘8개 단체호소문’(1975년 발표)이다. 일본문예가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른바 차별어에 대한 자기규제는 각 신문사, TV방송국, 출판사마다 각각에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강약의 차이가 보인다. 그 중에는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과도할 정도의 자기규제를 하는 회사도 있다. 명백한 차별적 표현은 당연히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차별어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주위의 문맥을 무시한 채 사용을 금하는 풍조가 일반화된다면, 그 누구도 문장을 쓰지 못할 것이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8개 단체호소문 중에도 “ ‘차별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규탄을 받은 매스컴 경영자 등이 규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금기어, 대체어집’과 같은 대외비 자료를 만들어 관계자들에게 강제하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어, 우리의 직업활동이나 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을 만큼 창작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받는다느니 하는 정도로 일본사회에서는 차별어에 대한 엄격한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카기 마사유키 1996: 249-254) 반면 한국의 미디어 등은 자체적으로 차별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은 듯하며, 혹시 대외비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방송과 신문을 검색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차별어에 대한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인식에 있어 한국과 일본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통역번역대학원 학생들의 차별어에 대한 인식 현황

앞에서 언급한 한국과 일본 간의 차별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규제현황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졸업 후 한일 교류의 많은 장면 속에서 번역과 통역을 담당해야 할 통역번역대학원 학생들은 차별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7) 일본방송작가조합, 협동조합 일본방송연예가협회, 일본배우연합, 전일본시력장애자협회, 영화연극노동조합공투회의, 일본출판노동조합연합회,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연합회,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 등 8개 단체.

한일 간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통역과 번역을 공부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14년 1학기 중에 차별어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관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시차를 두고 수업 중에 한국어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하게 하여 한일 간의 차별어에 대한 인식이 번역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3.1. 통역번역대학원 학생들의 차별어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이 설문 조사는 통역번역대학원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14년 1학기 중에 실시하였으며, 번역학과 9명, 통역학과 21명. 국적별로는 한국인 22명(73%), 재일교포 4명(13%), 일본인4명(13%), 학부에서의 전공은 일본관련학과가 7명(70%), 비일본관련학과가 21명(23%), 무응답 2명(7%)이었다.

설문조사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주관식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주요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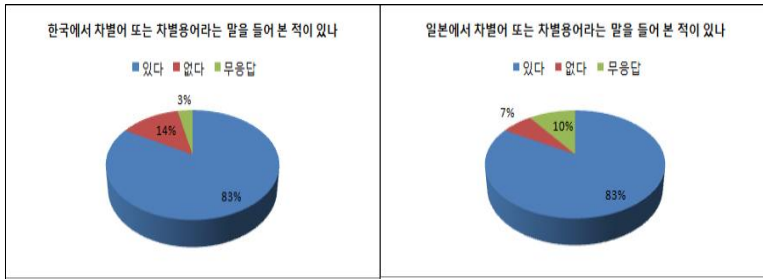
한국에서 차별어 또는 차별용어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1-1 한국에서 차별어 또는 차별용어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 경우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1-2 한국에서 차별어 또는 차별용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
2. 일본에서 차별어 또는 차별용어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2-1 일본에서 차별어 또는 차별용어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 경우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2-2 일본에서 차별어 또는 차별용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
3. 통대원 수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별어 또는 차별용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하에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설문조사 항목 중 1-1과 2-1의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5 와 같이 “들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83%(25명)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에서 차별어란 말을 들어 본적이 없는 학생이 4명(14%)으로 일본의 경우의 2

명(7%)보다는 많았다. <표 4>의 결과로 보아 학생들의 한일 양국의 차별어에 대한 인지도는 모두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4> 통역번역대학원 한일전공 학생들의 차별어에 대한 인지도



2) 설문조사 1-1과 2-1에서는 차별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 차별어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달라고 한 항목인데,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한국어 차별어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학생은 16명(64%), 일본어 차별어의 경우는 14명(60%)이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5>과 같다

<표 5> 통역번역대학원 한일전공 학생들 가지고 있는 차별어에 대한 개념

차별어에 대한 개념	
한국어 차별어	일본어 차별어
특정한 분류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줄 수 있는 용어	특정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남녀 관련 용어,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층을 따로 칭하는 용어	특정 분류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줄 수 있는 용어
어떠한 단어가 차별의 의미를 가져, 그 말을 들은 대상이 차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	한국/일본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과 같이 그 말 자체가 이미 차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	한국어에서의 차별어, 차별어와 같은 의미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차	한국어에서의 차별어, 차별어와 같은 의미

별의식이 담겨 있는 용어	
어떠한 특정 집단 또는 소수의 그룹을 비하하거나 폄하하여 부르는 말	한국어에서의 차별어, 차별어와 같은 의미
특정집단을 비하하거나 경시(무시)하는 느낌이 나는 단어를 뜻함	우리라는 집단과 비집단을 구분하는 용어
국적이 다른 사람, 신체 외양적 특징이 있는 사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로 부르는 말	특정 집단 혹은 소수 그룹을 차별하는 용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낮춰서 쓰는 말	한국어에서의 차별어, 차별어와 같은 의미
장애인 비하용어 등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	그 단어에 부정적이거나 비하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	한국어에서의 차별어와 비슷한 맥락
당사자가 박탈감을 받을 수 있는 말	인종, 직업별,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표현할 때 무시하거나 차별적인 느낌을 주는 말
주로 외국인(특히 한국보다 못 산다고 생각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경시하는 말	일반적인 기준에 못 미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
누군가의 신체적인 부분이나 주변 환경, 조건 등을 나쁘게 말하는 것	주로 외국인(일본보다 못 산다고 생각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경시하는 말
다른 민족이나 인종을 무시하는 용어	
성별이나 인종에 근거하여 다소 차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말	

학생들이 설명한 차별어에 대한 개념을 분석해보면 첫째로, 한국의 차별어에 대해서는 응답자 16명 중 11명의 학생이 “장애인이나, 인종, 성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혹은 특정한 집단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명의 학생은 발신자의 차별의도가 있는 표현, 나머지 2명은 수신자가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느끼는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로 일본어의 차별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응답자 14명 중 6명은 “한국어의 차별어의 개념과 같은 의미”라고 대답했고, 5명은 외국인이나 특정집단이나 소수 그룹을 무시하는 표현, 2명은 발신자의 차별의도가 있는 표현이라는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는 설명을 했고 1명은 “우리라는 집단과 아닌 집단을 구분하는 용어”라고 대답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차별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

들 중에서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한국어의 경우 36%(9명), 일본어의 경우 40%(10명)나 차지해, 1/3이상의 학생들이 차별어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이며, 차별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차별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더 높아진다.

3) 설문조사 항목 중 1-2과 2-2는 차별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별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개념에 대해 설명한 학생들은 전원 적어도 1개 이상의 구체적인 단어를 제시하였고 제일 많이 기재한 학생은 5개였다. 그 단어를 정리한 것이 <표 6>이고, 그 단어들의 유형별 비율을 표시한 것이 <표 7>의 결과이다. <표 6>과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별어로서 모두 장애인과 관련된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고(각각 40%와 41%), 다음으로 인종·민족과 관련된 단어를 많이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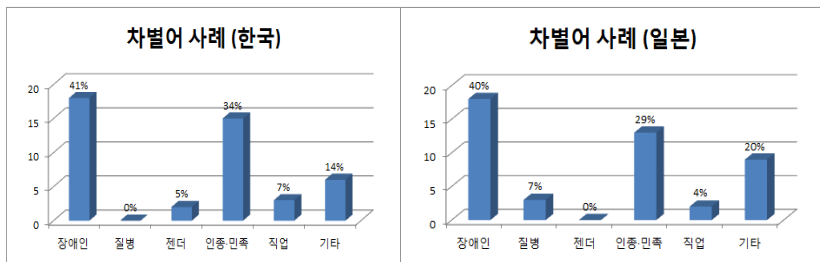
<표 6> 통역번역대학원 한일전공 학생들이 예로 든 차별어의 사례

차별어 사례 (한국)			차별어 사례 (일본)		
장애인	장애인	11	障害者	13	장애인
	장애자		害兒		
	애자		びっこ		
	정상인		めくら		
	정신병자	1	つんぼ	1	질병
	병신	3	痴呆	2	
	불구	1	ぼけ	1	인종·민족
저능아	1	チョッパリ	1		
절름발이	1	チョン	4		
젠더	호모	2	黒人	3	
인종·민족	짱깨, 짱개	3	朝鮮人	2	
	쪽바리	2	外人	2	
	왜인	1	ハーフ	1	
	반족발	1	看護婦	1	
	반일본인	1	サラリーマン	1	직업

	조선인	1
	살색	2
	흑인, 흑형	2
	백인	1
	혼혈	1
직업	웨이트리스	1
	스튜어디스	1
	가정부	1
기타	편부모가정	4
	노인	1
	빈곤층	1

기타	部落	1
	田舎	1
	こじき	2
	片親	2
	老人	1
	貧困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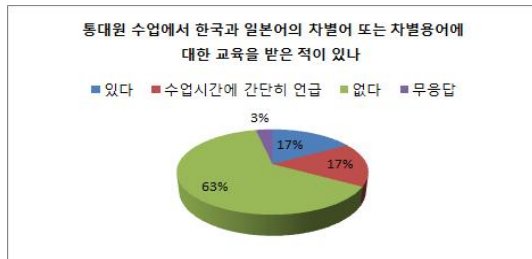
〈표 7〉 통역번역대학원 한일전공 학생들이 예로 든 차별어의 사례의 유형별 비율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통역번역대학원 학생들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별어 구체적인 표현을 한쪽 언어로만 알고 있더라도 양국 모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즉 두 언어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자어가 많은 부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 언어의 한자어로 차별어를 알고 있는 경우,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반대 언어로 번역한 경우에도 차별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차별어에 대해 여러 가이드라인이 있는 일본에서 자란 원어민(일본학생과 재일교포학생)들이 이런 오해를 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4) 설문조사 3의 항목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역번역대학원 수업 중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별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질문했다. 그 결과를 <표 8>로 정리했다. 63%(19명)이 없다고 대답했고 17%(5명)는 “수업 중 교강사가 간단한 언급을 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17%(5명)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표 8> 통역번역대학원 한일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용어에 대한 교육 실태



이러한 결과로 보아 한일 간의 차별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에도 불구하고 통역번역대학원 수업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2. 통역번역대학원 학생들의 한일 방향 차별어에 대한 번역의 실제

다음으로는 통역번역대학원 학생들이 한국어에서 일본어 방향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 일본어의 차별어에 대해 의식을 하면서 이를 반영한 번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설문조사와 시차를 두고, 설문조사 대상과 같은 학생들 30명에게 2014년 1학기 기말에 한국어 문장을 제시하고 일본어 문장으로 번역하게 하였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문장의 출처는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뉴스 원고이다. 문장 아래의 숫자는 KBS뉴스가 방송된 날짜와 시간이다. 이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표현은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므로, 한국어에서는 차별어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연구자들에 의해 차별어 범주에 들어가는 표현으로 분류되어 있다하더라도 방송에서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 미디어 측이나 일반 대중들이 차별어로 인

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요청 시 문맥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후의 문장을 함께 제시하여 전체 문장을 읽고 밑줄 친 내용을 번역하게 했다. KBS 뉴스 원고 중에서 한자어 등을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할 경우, 차별어가 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 텍스트를 유형 별로 2개씩 총 10개의 텍스트를 선택하여 번역하게 하였다. 5개의 유형이란 ‘심신의 장애나 질병과 관련된 차별어’, ‘직업(직종)과 관련된 차별어’, ‘인종이나 민족과 관련된 차별어’, ‘젠더(성차별)와 관련된 차별어’, ‘일본의 ‘부락’과 관련된 차별어’이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10개의 텍스트 중 중 유형 별로 1개씩 5개의 텍스트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음영처리한 부분이 한자어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일본어로 번역할 경우 차별어에 해당되는 표현으로서 본고에서 연구자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이하에서 ST와 학생들이 번역한 두 사례인 TT1, TT2를 제시한다. ST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텍스트가 TT1이며, 대체어 등 일본어의 차별어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으로 번역한 것이 TT2이다.

1. ST: 1972년에는 ‘패리’(PARRY)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정신과 의사 출신인 스탠퍼드대 인공지능연구소의 케네스 콜비 교수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의 반응을 흉내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4.06.09 (1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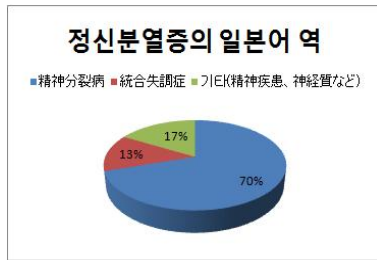
TT1: 精神科医出身のスタンフォード人工頭脳研究所のケネス・コルビ教授が開発したこのプログラムは偏執性精神分裂病患者の反応をまねるよう設計されました。

TT2: 精神科の医師で、スタンフォード人工頭脳研究所のケネス・コルビ教授が開発したこのプログラムは偏執性統合失調症患者の反応をまねるよう設計されています。

ST의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은 최근 한국에서도 ‘조현증’으로 바뀌어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여러 미디어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한자어를 일본어로 그대로 번역한 경우가 TT1이다. 그러나 ‘精神分裂病’는 일본어의 ‘심신의 장애나 질병과 관련된 차별어’ 중 대표적인 사례로서 ‘統合失調症’로 번역해야 한다. 30명의 학생들 중 70%(21명)이 ‘精神分裂病’로 그대

로 번역하였고, 13%(4명)만이 ‘統合失調症’로 번역, 17%(5명)은 ‘精神疾患’, ‘神経質’ 등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9>이다.

<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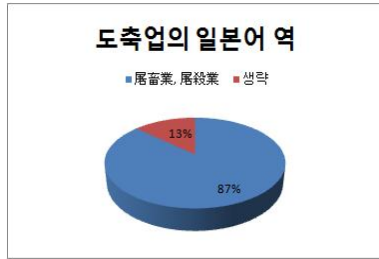
2. ST: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또, 내부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재료로 마감해야 할 공장 종류에 도축업과 조미료 제조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2013.10.23 (15:52)

TT1: 改正案はさらに、内部を燃えにくい難燃剤で仕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工場の種類として屠畜業と調味料製造業など17つの業種を追加しました。

TT2: また、改正案には、内部を燃えにくい難燃剤で仕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工場として調味料製造業など17業種が追加されました。

2번의 ST에서 나오는 ‘도축업’의 경우도 ‘屠畜業’, 혹은 ‘屠殺業’은 일본어의 경우 ‘직업(직종)과 관련된 차별어’로서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금기시되어 있으며, ‘食肉處理業’로 대체하도록 여러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다. 학생들의 77%(23명)이 ‘屠畜業’, 10%(3명)이 ‘屠殺業’로 번역했고, 13%(4명)은 TT2와 같이 이 표현을 생략한 채 문장을 번역했다. 무려 87%의 학생들이 일본에서는 금기시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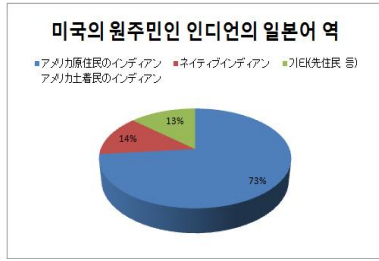
3. ST: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의 고교 졸업률이 소수 인종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교육 전문 매체인 ‘에듀케이션 위크’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인디언의 고교 졸업률이 51%로, 역대 최고치 54%보다 3%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2013.06.09 (07:37)

TT1: アメリカの原住民であるインディアンの高校卒業率が少数民族のうち、唯一低下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TT2: アメリカの先住民族であるネイティブアメリカンの高校卒業率が少数民族のうち、唯一下が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3번 ST의 ‘원주민인 인디언’의 경우는 ‘인종이나 민족과 관련된 차별어’ 범주 안에 들어가는 표현으로서, TT1의 ‘原住民であるインディアン’ 중, ‘原住民’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미디어도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 ‘先住民族’으로 ‘インディアン’도 ‘ネイティブアメリカン’으로 대체되고 있다. 66%(20명)가 ‘原住民のインディアン’ 7%(2명)가 ‘土着民のインディアン’, TT2와 같이 ‘ネイティブアメリカン’으로 번역한 학생은 4명으로 14%의 비율을 보였다. 여기에서도 73%에 해당하는 학생이 부적절한 표현으로 번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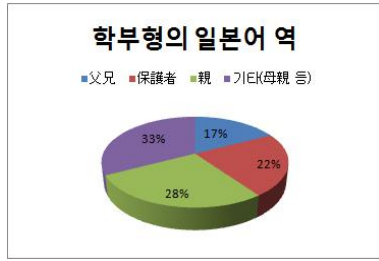
4. ST: 9.11 테러를 정당화하는 느낌의 글이 쓰인 티셔츠를 아들에게 입혀 유치원에 보낸 프랑스 학부형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9월 11일에 태어난 나는 폭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세 살짜리 아들에게 입혀 유치원에 보낸 엄마에게 벌금 2천 유로와 집행유예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3.09.21 (16:10)

TT1: 同時多發テロを正当化する文字がプリントされたTシャツを息子に着せて幼稚園に行かせた父兄が刑事處罰を受けました。

TT2: 同時多發テロを正当化する意味合いの文句が書かれたTシャツを息子に着せ幼稚園に行かせた親が刑事處罰を受けました。

4번의 ST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학부형'이며, 한국의 연구자들도 이 표현은 '젠더(성차별)와 관련된 차별어'의 사례로 들고 있으나, 미디어 등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TT1에서는 '父兄'으로 TT2에서는 '親'으로 번역하고 있다. 학생들 중 '父兄'로 번역한 비율은 17%(7명)이었고, '保護者'는 22%(9명), '親'은 28%(11명)이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젠더(성차별)와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는 50%의 학생이 대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젠더(성차별)와 관련된 차별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12>



5. ST: 북한이 최근 가족가운데 탈북자가 있는 가정들을 강제로 이주시 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도지방의 집단부락에 강제수용해서 엄격한 통제 아래 살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01.24 (06:28)

TT1: ハムキョン道のある集団部落に強制收容され、厳格な統制の下で暮ら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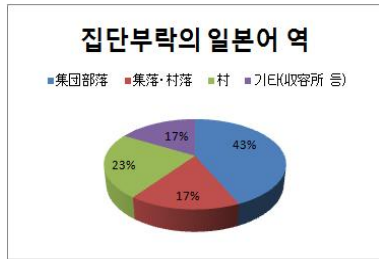
TT2: ハムキョン道のある集落に強制的に連れて行かれ、厳しい監視の下で暮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5번의 ST에서는 한국어에는 없는 차별어의 유형, 즉 ‘일본의 ‘부락’과 관련된 차별어’가 등장한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이 유형의 차별어에 대해서는 일본 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근에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관련단체의 항의와 규탄도 많은 유형이라 미디어도 가장 섬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엄격한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번역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TT1에서는 ‘集団部落’으로 번역, 동일한 한자어를 쓰고 있으나, TT2에서는 여러 가이드라인 상의 대체어인 ‘集落’로 번역했다. <표 13>에 나타나듯이 43%(13명)의 학생이 ‘集団部落’으로 번역했고, ‘集落’나 ‘村落’으로 번역한 학생은 5명(17%), ‘村’이 23%(7명), 기타 17%(5명)의 순이다. 약 50%의 학생이 일본의 ‘부락’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거나,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部落’이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사회에서 민감한 이슈인 만큼 들어 본 경험이 많을 수 있고, 이 유형에 해당하는 표현 중 이 문제를 바로 떠올리게 하는 ‘집단부락’이란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13〉



위와 같은 통역번역대학원 학생들의 번역실태에 대한 분석을 정리해보면, 우선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의 경우, 일본어의 차별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채 한일방향으로 번역할 때 그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차별어로 번역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둘째로, 차별어의 유형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높은 비율(50%에서 많게는 87%)로 학생들은 일본의 차별어를 번역 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젠더(성차별)과 관련된 차별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의식하며 번역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는 번역에 참여한 30명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도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넷째로 ‘일본의 ‘부락’과 관련된 ‘차별어’에 대해서도 50%정도의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차별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서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이 유형의 차별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4. 결론

이상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별어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나라에 있어서의 차별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논해 왔다. 특히 일본에서는 방송이나 신문, 출판사 등이 자체적으로 차별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

들어 이에 따라 자율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차별어에 대한 개선·완화·시정을 위한 일부 노력이 있기는 했으나 사회적으로 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에 있어서의 무분별 차별어의 사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한일 간의 소통을 담당해야 할 통역번역대학원의 한일전공의 학생들은 이러한 한일 간의 차별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특히 한국에 비해 엄격한 차별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일방향의 번역과 통역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차별어의 개념에 대해 40%를 넘는 학생들이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바른 설명을 하지 못했으며, 번역결과물은 텍스트에 따라 50~87%의 학생들이 일본의 차별어를 번역시 사용하고 있었다. 한일방향의 방송과 신문 등의 뉴스 번역, 방송통역을 시야에 넣을 경우, 학생들의 차별어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설문조사의 결과에 나타나듯이 통역번역대학원의 수업 중에 차별어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63%에 이르고 간단하게 들은 적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 17%를 합하면,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차별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반성으로서 향후, 통역번역대학원의 번역과 통역수업에 있어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별어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설명한 선행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이론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 통번역 수업에 있어서 일본의 미디어 등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차별어의 사례집, 대체용어집 등을 활용하여 차별어에 대한 대체적 표현의 습득을 도울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문학번역에서의 차별어 교육이다. 일본의 경우 앞에서 소개한 ‘일본문예가협회의 성명서’의 주장처럼 일부 미디어 등의 차별어에 대한 자율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문학번역 수업시간에는 무조건 차별어에 대한 대체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함께 소개하고 여러 사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도 흥미로울 것 같다. 여러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많은 수업에서 차별어에 대한 교육이 중복되는 비효율성을 배제한 형태로 차별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설계하고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번역자와 통역사에게는 고도의 어학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이와 함께 번역과 통역의 여러 장면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적절한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능력(전달 능력)’이 요구된다. 차별어에 대한 교육도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편 (2010) 『이런 말에 그런 뜻이?』, 서울: 국립국어원.
- 박동근 (2010)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에 대한 차별의식 연구」, 『입법정책』 4(1): 83.
- 박정일 (2002) 「差別語の意味論的研究」, 『외대어문론집』 17: 71-91.
- _____ (2007) 「日本の差別語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 박혜경 (2009)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 변용찬·김성희·서동우·이선우·임유경 (2001)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영철·이길용 (2010)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의식 및 대안표현 유형연구」, 『일본언어문화』 17: 189.
- 임영철, 국립국어원 (2008)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조영주 (2008) 「방송 통역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어문학』 39: 154.
- 조태린 (2006)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内野正幸 (1990) 『差別的表現』, 東京: 有斐閣.
- 江上茂 (2007) 『差別用語を見直すーマスコミ界・差別用語最前線』, 東京: 花伝社.
- 共同通信社(2008) 『記者ハンドブック』, 東京: 共同通信社.

- 生瀬克己 (1986) 『障害者と差別語－健常者への問いかけ』, 東京: 明石書店.
- 中村桃子 (2000) 『言葉とジェンダー』, 東京: 勁草書房.
- 塩見鮮一郎 (1995) 『差別語と近代差別の解明』, 東京: 明石書店.
- 高木正幸 (1996) 『差別用語の基礎知識』, 東京: 土曜美術社出版販賣.
- 田中克彦 (2001) 『差別語からはいる言語學入門』, 東京: 明石書店.
- 福岡安則 (1985) 『現代社會の差別意識』, 東京: 明石書店.

[Abstract]

A Study on the Need to Teach Discriminatory Language of Japanese to Student Interpreters/Translators

Cho, Young Ju

(Ewha Womans University)

When a text subject to Korean-Japanese translation or interpreting includes “discriminatory language,” whether in a working environment or a classroom, the language is often changed to a neutral, non-discriminatory language or a figurative expression.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hen translating or interpreting from Korean to Japanese, due to difference of awareness concerning discriminatory language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and the underlying socio-cultural differenc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such differences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regarding discriminatory language by summarizing the concept and types of discriminatory language in Korea and in Japan. A socially recognized concept and definition of discriminatory language has yet to be established in Korea and previous research on the subject is mostly limited to discriminatory expressions regar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is paper will attempt to define the difference of awareness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by focusing on the Japanese concept and types of discriminatory language. Also, the paper outlines the regulations or guidelines of the Japanese media regarding discriminatory language, which are far stricter than in Korea. It then analyzes the level of awareness held by students of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regarding discriminatory language in Korea and in Japan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Also, by analyzing the students’ in-class translations, the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a more systematic education on Japanese discriminatory language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class.

▶ Key Words: discriminatory language, people with disabilities

조영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cyj9134@ewha.ac.kr

관심분야: 뉴스번역, 영상번역, 통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4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15일